

## 6/16(목) 느헤미야 묵상 12

### 느헤미야 7: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 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를 파악하게 됩니다.

#### 성벽 재건의 완성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52일 만에 마무리 됩니다. 그 후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업무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1절,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은 이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벽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이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또, 방어벽인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는 일에 레위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은 성벽의 문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듣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성벽은 언제든지 훼방꾼에 의해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전처럼 각자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밤낮으로 성벽에 나와 일했던 것입니다(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 인구조사와 새 인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감독할 레위인들 외에도 예루살렘을 다스릴 새 인사를 단행합니다(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당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궁전, 성채, 요새’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을 감독하는 책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같이 예루살렘을 책임질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그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느 2: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상보다 긴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고 B.C.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느 3:14,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후 느헤미야는 B.C. 425년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기간 동안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유다 땅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성벽 재건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효를 계수하게 됩니다(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B.C. 538년부터 시작된 1차 포로 귀환 때 부터 B.C. 444년에 이루어진 3차 포로 귀환 때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땅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에 교만하게 행했던 인구조사와는 달리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했던 것입니다(느 7: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은 과거 다윗 왕 때에는 그로 하여금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시 20: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삼하 24:3-4하,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참모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군사와 말, 그리고 병거를 조사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그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한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상 21:1절은 이것이 사탄이 그에게 일으킨 일이라고 말씀합니다(대상 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인해 백성의 칠만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실시한 인구조사는 교만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는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 주변 동역자들의 의견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결길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미얀마의 군사 구데타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군인들이 카야주의 한 마을에서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5 명을 산채로 불태웠고, 지난달 말에는 교회가 민간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명목의 친주의 상펜 기념교회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순위 12 위입니다. 미얀마의 교회와 기독교인들 그리고 군사 정부가 물러나고 민주적 통치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 부서,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